

지역 소식통

김제시, 관내 초등학교 교사 사회교과 지역화 교재 사전답사

김제시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교사 40여명이 초등 사회교과 지역화 교재 사전답사를 위해 김제시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초등학교 3학년 교사들의 시정방문은 사회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역화 보완교재 "우리고장 탐방" 학생 지도를 위한 사전답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시정 종합민원실과 통합관제센터, 김제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주민편의 시설과 대민상담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CCTV운영현황, 비상벨 작동요령, 비상상황발생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청취했다.

/김제=곽노태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정동환)는 정읍시 북면 마정마을회관에서 지역농업인, 지사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등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은행사업 홍보 등 현장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을 실시했다.

정읍지사는 3월말까지 집중운영기간으로 설정, 지역별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추진하여 영농기 이전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수렴하고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3월 이후부터는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계속하여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

김제시는 시정 3층 대회의실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공사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임성근 안진개발국장의 주제로 관내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 및 김제시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박종민) 임원과 관계 공무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스팔트콘크리트 신설포장 및 유지관리 공사시 재료분리가 가끔 발생하는데 대해 시공사에서는 생산업체에게 규정에 맞는 품질 확보를 요청하였고 생산업체는 자체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공사와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절삭된 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환경개선을 도모할수 있기를 주문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산림조합

산림조합종합경영평가 1위

2013년 이어 창립55년이래 전국최초 연속 수상 영예

산림조합중앙회 제55기 정기총회에서 2016년도 경영우수조합과 산림조합발전유공자에 대한 정기표창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산림조합종합경영평가 경영대상(전국1위) 조합으로 선정된 정읍산림조합(조합장 김민영)은 2013년도에 이와 같은 산림조합종합경영평가 경영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경영평가 방법은 한번 수상하면 3년 동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룰에 의거 그동안 수상하지 못했다가 이번이 3년이 경과하여 평가 대상의 물망에 올라 다시 한번 같은 상을 연속으로 거머쥔 영예를 차지했다.

이렇게 경영대상으로 연속 두 번 수상한 것은 전국 최초의 일이다.

정읍산림조합(조합장 김민영)은 "이 같은 영광을 안게 해주신 정읍시민과 조합원, 그리고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



우리나라 산림은 온실가스의 10.3%를 흡수하고 공익적 가치는 126조에 달한다. 국민 1인당 24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며,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국내총생산 규모로 조금 더 비교해 보자면, 산림의 공익적 경제 가치는 농업어업 총생산의 약 4배, 임업 총생산의 65배, 산림청 예산의 67배에 달하는 규모로 상당한 수준이다.

정읍산림조합은 "이제는 심고 가꾸는 역할을 넘어 경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말하며 산림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시정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용지 정착농원 ·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논의

김제시는 시정 2층 상황실에서 김중회 국회의원과 강병진·정호영 도의원, 내병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하는 시정현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 조기 극복과 지역 안정을 위해 비상체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시정 주요현안 및 국도비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격의없는 대화속에 상호 발전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어 의미를 더하였다.

특히 시정 주요현안 과제인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김제공항부지 관리전환, 새만금 수목원 예타 통과, 새만금 김제어항 개발 등에 대해 쟁점 해소 방안을 논의 했다.

또한 김제육교 재가설 국비 추가확보, 종자가공처리센터구축, '18년 국제종자산업박람회, 새만금 전방타워 조성사업, '17년 농업기계박람회 등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에 대해 참석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김제시는 2018·2019년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과 적극적인협조를 요청하였고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이승복 시장권한대행은 "시정 주요현안과 국도비 사업들은 행정과 정치권의 유기적인 공조와 더불어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 가능하다"면서 "김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모두 다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부안군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히 집행하여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권재민 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소 주무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및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활용해 각종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더욱이 권재민 부군수는 "과급효과가 큰 사업예산에 대한 조기 발주 및 설계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집행실적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를 위해 군은 권재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지난 1월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입찰제도, 선급 급집행 등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부안=이옥수기자

배인태 NH농협 부안군지부장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

NH농협 부안군 배인태 지부장의 고 향사랑은 남 다르다.

부안군 주민들 출신인 배 지부장은 고향 선·후배님들이 WTO와 FTA 등 시장개방으로 농·축산물 값 파동에,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다.

90년 3월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에 첫발을 내 디딘 배인태지부장은 17년 만에 농협 부안군지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역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친 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수입에 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고향 선·후배님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특히 배 지부장은 우리의 먹거리 소비패턴의 다문화, 고급화, 식품 안전 환경 등에 대한 도시민의 관



심증가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추세에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친 환경농업 실천이라며 오늘날 시장개방은 거역하기 어려운 세계경제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배 지부장은 또 쌀값 하락으로 영농상환 독촉 게다가 농축 값 파동에, 축산 농가는 파산 직전에 허덕이고 밭대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희망을 갖고 친 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해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기울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할 때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배 지부장은 우리 농업이 대외적으로는 WTO와 FTA 등 시장개방 등 경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소비패턴의 다문화, 고급화, 식품안전, 환경 등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증가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추세에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친 환경농업 실천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 김제시 컨소시엄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 선정

정읍시와 김제시 컨소시엄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17년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정읍시와 김제시는 이번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8억1천200만원에 지자체 부담 2억7천만원(정읍 10억8천700만원(정읍 7억 600만원, 김제 3억8천100만원)을 투입해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설 현대화와 특화코너 지원 등을 통한 모델육성에 나서고 나들가게 건강관리(위생, 방재, 제고조사, POS 방문교육 등)사업도 추진하며, 나들가게 점주 역량 강화교육과 조직

화 지원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번 선정과 관련 양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 회복과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정읍과 김제가 손을 맞잡고 공모사업에 응모, 전국 최초의 시범사례로 평가 받으며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 이후 나들가게 지원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사업전수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 공동세일링 기획 등 양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나들가게 활성화에 나서 양 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4월 15일 개최

올해로 제10회를 맞는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가 오는 4월 15일 광활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추진위원회는 광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위원회의'를 통하여 올해 감자의 생육기간과 수확일자를 고려해 축제 개최일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축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로, 광활햇감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시식코너 운영과 시종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감자를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광활감자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김제=곽노태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럽게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E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